

### 이지영 오늘 LPGA 첫 정상 도전



## “선두 오초아 꼭 잡고 말거야”

#### 세이프웨이 인터내셔널 우승컵 놓고 격돌

장타자 이지영(23·하이마트)가 ‘골프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와 맞대결에서 미국 진출 이후 첫 우승에 도전한다. 이지영은 30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슈퍼스티션마운틴의 슈퍼스티션마운틴골프장(파72·6천682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세이프웨이 인터내셔널 3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쳐 4타를 줄인 오초아에 1타 뒤진 공동2위(15언더파 201타)에 올랐다. 이지영은 31일 열리는 최종 라운드에서 오초아와 챔피언즈에서 우승컵을 놓고 겨룬다. 2005년 제주에서 CJ나인브릿지클래식을 제패하며 LPGA 투어에 진출한 이지영은 지난 2년 동안 우승컵을 보지 못했지만 나차레나 준우승을 차지해 언제든 정상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 선수. 특히 드라이버샷을 가장 멀리, 그리고 똑바로 날려보내는 선수로 이름이 나 있다. 그동안 쇼트게임과 그린 플레이에서 약점을 드러냈던 이지영은 이번 대회 들어 54홀 동안 2라운드 때 더블보기 1개를 적어냈을 뿐 보기없는 깔끔한 플레이가 돋보였다. 이날도 이지영은 보기없이 버디만 다섯개를 골라내는 무결점 경기를 선보였다. 504야드 짜리 파5홀인 2번홀에서 티샷을 292야드나 때려나 가 쉽게 버디를 뽑아낸 이지영은 4번홀(파3·150야드)에서 9번 아이언으로 그린에 볼을 올려놓고 10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상승세를 탔다. 7번홀(파5·537야드)에서도 80야드를 남기고 친 세번째샷을 4.5m 옆에 떨어 1타를 줄인 이지영은 13번(파5), 16번홀(파4)에서도 버디를 잡아내 공동 선두까지 올라섰다. 이지영은 18번홀(파5)에서도 버디 기회를 잡았으나 버디 퍼팅이 홀을 살짝 훑고 돌아나와 아쉬움을 남겼다. 이지영은 “오초아와 서너차례 동반 플레이를 해봤지만 번번이 내가 졌다”면서 “하지만 이 코스가 마음에 들어 마음도 편하고 자신도 있다”면서 이번에는 오초아를 꺾어보겠다는 의욕을 드러냈다. 5번홀까지 4타를 줄이며 선두를 질주하다 12번홀(파3) 티샷 실수에 이어 2m 파퍼트를 놓지 못해 공동 선두를 허용했던 오초아는 18번홀(파5)에서 버디를 뽑아내 단독 선두로 경기를 마쳤다. 첫날 10언더파 62타를 때려 코스레코드를 갈아치운 여세를 몰아 이날 동안 선두를 달렸던 안젤라 스펀데(미국)는 2언더파 70타에 그쳐 이지영과 공동2위로 내려 앉았다. 박인비(20)가 데일리베스트인 7언더파 65타를 뽑아내 공동4위(12언더파 204타)로 도약했고 6위(11언더파 205타)에 김초롱(24), 7위(10언더파 206타)에 오지영(20)이 포진했으며 박희영(21·이수건설)과 유선영(22·휴온스)가 공동8위(9언더파 207타)에 합류, 10위 이내에 한국선수 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대회를 세차례나 제패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은 1타 밖에 줄이지 못해 오초아에 7타 뒤진 공동8위(9언더파 207타)에 머물렀다. 한편 슬럼프에 허덕이던 박지은(29·나이키골프)이 데일리베스트인 65타를 때려 공동20위(7언더파 209타)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 박진 이븐파 62위

##### PGA 취리히클래식 3R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취리히클래식 3라운드가 비로 순연된 가운데 한국 선수

가운데 혼자 살아 남은 박진(31·던롭스리슨)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박진은 30일(한국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루이지애나TPC(파72·7천341야드)에서 열린 3라운드에서 이븐파 72타를 쳐 중간합계 이븐파 216타로 공동 62위에 그쳤다.

폭우가 내려 경기가 차질을 빚은 끝에 날이 어두워져 순연된 가운데 11번홀까지 치른 우디 오스틴(미국)과 10개홀을 돈 니컬러스 톨슨(미국), 그리고 3번홀까지 마친 브리니 배드(미국)가 8언더파로 공동 선두를 달렸다.



### 프로축구 3R 막내려...작년과 달라진 위상

#### 광주 최하위 → 5위 급상승

#### 전남 FA 우승 → 12위 추락

“한숨 돌린 전남, 무패 행진 광주” 지난 8일 킥 오픈한 프로축구 2008 K-리그가 30일 3라운드 경기를 끝으로 초반 기선 싸움을 끝냈다. 지난해 FA컵 우승팀 전남 드래곤즈와 K-리그 꼴찌 광주 상무는 전체 14개 팀중 각각 12위와 5위를 차지하며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전남은 광태휘, 고기구, 김치우 등 주전들의 잇따른 부상으로 K-리그에서 2연패를 당하며 14개 팀 중 13위까지 떨어지는 수모를 당했다. 설상가상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일찌감치 겹치면서 호주 원정을 다녀오는 등 3월 내내 힘든 행군을 해왔다. 다행히 전남은 29일 광

양에서 벌어진 대전 시티즌과의 홈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올 시즌 첫 승점을 챙기고 ‘잔인한 3월’을 탈출했다. 공격수 고기구는 이날 경기에서 선제골을 터뜨리며 부상 탈출을 신고했고, 슈바·김치우 등도 그라운드로 돌아와 박항서 감독의 어깨를 한결 가볍게 했다. 문제는 광태휘다. ‘골 넣는 수비수’ 광태휘는 부상이 완전히 않은 상황에서 지난 26일 있었던 북한전에 국가대표로 차출되면서 상태가 더 악화됐다. 선제골을 넣은 뒤 동점을 허용한 전남 입장에서는 광태휘의 부재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고난의 3월을 보낸 전남에 비해 광주 상무는 ‘무패행진’을 이어가며 2008시즌

돌풍의 주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9일 개막전에서 성남을 상대로 선취골을 뽑으며 무승부를 기록했던 광주는 2라운드 경기에서 경남을 2-0으로 제압하며 승점 3점까지 챙겼다. 울산과의 컵대회에서 0-0으로 대등한 경기를 펼쳤던 광주는 지난 29일 부산아시아드 경기장에서 벌어진 부산아이파크와의 3라운드 경기에서도 시종일관 게임을 주도하며 0-0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펼쳤다. 상무의 돌풍에는 한태유, 김명중, 박규선, 김용대가 있다. 국가대표 깜짝 발탁으로 유명세를 탄 수비수 한태유는 29일 경기에서 톱 스타 안정환을 내세운 부산의 공격을 공방 묶으며 공격수들의 활로를 열어주었다. K-리그 연속 2골로 스타덤에 오른 공격수 김명중은 날카로운 헤딩슛으로 상대 골키퍼 서동명의 간담을 서늘게 했다. 공격수 박규선은 김명중과 찰떡 호흡을 과시하며 2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국가대표 골키퍼 김용대는 컵 대회를 포함해 올 시즌 4경기에서 단 1점만을 허용하며 팀 최소 실점에 도전하고 있다. /부산=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학운기 동호인 배구...“마음은 프로” 30일 전남대학교체육관에서 열린 제7회 학운기 생활체육 동호인 배구 대회 8강전 나주배시랑클럽과 월출클럽 4강전, 나주배시랑클럽 4번 한중현(오른쪽)이 월출클럽 블로킹을 따돌리고 스파이크를 성공시키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광주체고 김시상·김주리

##### 종별태권도 남녀부 우승

김시상(광주체고)이 2008 전국종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시상은 30일 안동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남고부 핀급 결승전에서 신의석(영천고)과 공방전을 펼치다 서든데스 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따냈다. 김주리(광주체고 1년)는 여고부 밴던급 결승전에서 김현진(기흥고)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끝에 5-0으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원우(문성고 3년)와 장유진(광주체고 1년)은 각각 남고부 플라이급과 여고부 핀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호날두 1골 3도움...맨유 6연승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포르투갈 특급’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3)의 1골3도움 활약을 앞세워 6연승 행진을 이어 나갔다. 맨유는 30일 잉글랜드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에서 치러진 2007-2008시즌 정규리그 32라운드 애스턴 빌라와 홈 경기에서 호날두의 선제골·테베스의 추가골, 후반 웨인 루니의 연속골을 합쳐 4-0 완승을 거뒀다. FR(07 : 30·SBS골프) ▲2008 메이저리그(에블랜다 : 워싱턴) (08 : 55·XSPORTS) ▲춘계 중고유도대회(14 : 50·SBS스포츠) ▲07/08 프로농구 6강 PO 2차전(SK : KT&G)(18 : 50·SBS스포츠·XSPORTS)



31일 (월) ▲2008 PGA 취리히 클래식 FR(05 : 00·SBS골프·SBS스포츠) ▲2008 LPGA 세이프웨이 인터내셔널

교사임용시험? 손꼽히는 공부는 남매형 준비사당! **곽내영교육학**

교육학, 초등교육, 유아교육, 행정중재심판, http://www.naeyoung.com, 529-0090

합격률 전국 1위! **공인중개사** 오전반 야간반 4월1일 첫진도 시작

수강료 50% 환급과정

현대적 학습시설, 첨단학습보조 시스템, 과학적 평가 시스템, 창업 및 취업 센터 운영

전남고시학원 (전남이코 건너편) 236-2467~8, 고객무로전화 080-0236-2468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울점 ☎361-8111, 학주점 ☎529-8111

개강 4월1일 합격, 국비무료

새로운 행정고시학원, 서울점 ☎361-0111, 학주점 ☎529-0111